

**S** 식사는 하셨어요?

**B** 밥 먹었니?

**| 이번 주에 밥 한 번 먹어야지**

# 역시 밥에 진심인 한국인

SBI백일장 응모작 중에서





## ‘맛’이 시작되는 계절

대표적인 한국의 ‘맛’이라면 된장, 고추장, 간장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직접 담근 장보다는 마트에서 사서먹는 데 익숙해서  
 이런 장들을 담그는 기본 재료가 메주인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1년 내내 맛있는 음식들에 꼭 들어가던 재료들이  
 가을에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가을에 수확한 콩으로 늦가을부터 메주를 만들어 겨울에 잘 말리고 숙성시켜  
 음력 1월에 장을 담그는 게 맛과 영양분이 최고로 좋다고 합니다.

# SBI저축은행 MAGAZINE 희망저축

## Contents

2022 AUTUMN  
Vol.35

**발행일** 2022년 10월 7일  
**발행인** 정진문, 임진구  
**발행처** SBI저축은행 홍보팀  
**담 당** 김윤희(02-3416-4012)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센터원빌딩 동관 9층  
**기획·디자인** 디스토리



웹진 [sbwebzine.co.kr](http://sbwebzine.co.kr)  
 SBI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2-805(2022.10.05.)

<b>SBI 체험현장</b> 가을 먹방 필수 코스 새우 드셔 보세요!	04	<b>New Face</b> SBI의 새얼굴을 소개합니다	18
<b>앱 사용 설명서</b> ‘맛.잘.알’로 거듭나기 위한 추천 어플리케이션	08	<b>세상읽기</b> 자연이 전하는 귀한 선물, 제철 음식	26
<b>SBI Answer</b> SBI인이 반한 “맛” 여러분의 인생 맛집은?	10	<b>SBI 희망뉴스</b> 2022년 3분기 주요소식	30
<b>SBI 포커스</b> 배우 박성웅과 함께하는 SBI 백일장	14	<b>열린편집실</b> 편집후기 독자 Quiz / MZ 용어 Quiz	34



# 가을 먹방 필수 코스 새우 드셔 보새우!



SBI인에게 추천하는 가을 별미



## ENFJ의 치밀한 먹방을 보여주겠다!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 가을이라는 데! 어찌하여 나는 살이 쭉쭉 빠지지?’

입사한 지 2개월 차! 하루하루 모든 업무가 새롭고 배울 것 투성이인 신입 사원은 하루 하루가 바쁘고 살이 빠집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의 고민을 알고 있었다는 듯, 이번 달 체험은 ‘새우 먹방!’ 이런 공고를 그냥 지나치는 건 ‘유죄’라는 생각으로 동기와 함께 지원했어요.

평소 ‘게’, ‘로브스터’, ‘새우’ 껍질이 딱딱한 모든 생물은 자신의 맛있는 살을 감추기 위함이라는 ‘먹계관(먹방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저희에게 새우는 가을이면 절대 건

너될 수 없는 필수 먹방 아이템이거든요. 게다가 새우는 필수 아미노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려서 원기가 허해진 여름이 끝난 가을 보양식으로 제격이거든요!

참고로 저희는 모두 MBTI가 ENFJ예요. ENFJ의 특징은 외향적이어서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먹는 것을 좋아하고, 계획을 치밀하게 짜고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새우 요리를 먹을 날만 기다리며,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치밀하게 극락의 맛을 즐길지 고민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새우 요리는 먹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랐죠. 그리고 새우와



참여\_ 민홍기(소호영업2팀)  
조원웅(강남지점)



깜짝 퀴즈! ‘새우가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정답은 “육즙 터지는 속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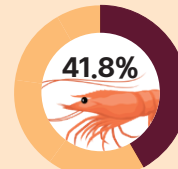
새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소금 위에 굽고, 기름에 튀기고, 라면에 넣어서 끓여야 합니다.

어떻게 먹어도 새우는 사랑이거든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SBI인들이 이미 많았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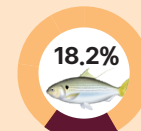
지난 9월에 진행한 설문에서 당당히 ‘가을의 맛 1위’를 차지하기까지! 이쯤이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겠죠?

껍질까지 집어삼킬 의욕의 신입사원 조원웅, 민홍기 사원이 신들린 새우 먹방을 보여줬더니, 함께 확인해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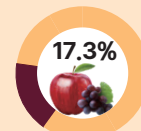
## SBI사이 꼽은 최고의 ‘가을의 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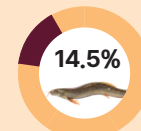
1 굽은 허리도 퍼게 한다는 가을 새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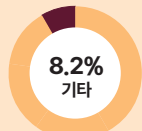
2 집 나간 며느리도 부른다는 전어



3 가을 과일의 황제 사과와 포도



4 가을 추어탕



5 기타



흥가'S 먹Tip



새우 먹방에도 순서가 있다.  
 새우회 → 새우 튀김 → 간장 새우 → 새우 머리 튀김  
 → 새우 라면 순서로 먹는 것을 추천!  
 모든 음식은 간이 약한 것부터 강한 순서대로 먹어야  
 각 음식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

찰떡궁합인 비밀 병기까지 미리 준비 끝! 이제는 경건한 마음으로 새우와 만나, 제대로 된 ENFJ의 먹방을 보여줄 일만 남은 거죠. 그리고 SBI인들을 위해 저희가 뽑은 최고의 새우 요리와 먹는 꿀팁을 남길 테니, 저희와 함께 눈으로라도 함께 새우를 먹어보실까요?

SBI 인증 최고의 새우 요리는?

이날 저희가 시킨 요리는 새우 요리의 스테디셀러 '새우 소금구이', 밥도둑 '간장 새우', 둘이 먹다 둘이 죽어도 모를 '새우튀김', 신선함의 끝판왕 '새우 회', 그리고 이걸 먹지 않았으면 제대로 새우를 먹지 못했다고도 단

언할 수 있는 '새우라면'과 '새우 머리 튀김'까지 새우 요리 풀 코스를 제대로 먹어보았습니다.

저희가 먹어본 결과, 새우 소금구이는 구이이긴 하지만 뚜껑을 덮고 구웠기 때문에 새우에서 나온 육즙이 수증기 역할을 하게되어 생각보다 더 촉촉하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간장 새우는 짜기보다 살짝 청양고추가 들어있어서 매콤했고요. 튀김은 말할 것 없이 바삭바삭하면서 고소했고요. 그리고 새우회는 이번에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신선하면서도 눈이 번쩍 떠질 정도로 맛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새우도 먹는 순서가 중요

해요. 처음에는 간이 안 된 회를 먼저 먹어야 해요. (혹은 입맛을 돋우기 위해 매콤한 간장 새우를 먹는 것도 추천) 자칫 튀김을 먹고 회를 먹으면 혀에 남은 기름 때문에 섬세한 새우 회의 맛을 제대로 즐기기 힘들거든요. 그 후에 튀김을 먹고, 느끼함을 매콤한 간장 새우를 먹으며 씻어내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배가 불러오면 새우가 한껏 들어간 새우 라면 국물로 마무리해주면 그때부터 처음 먹는 것 같은 마음으로 먹방 2차전을 시작할 수 있죠.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새우의 부위 중에서 가장 맛있는 곳이 바로 '머리'예요. 새우 머리에는 주황빛 내장이 들어있는데 이게 게 내장 못지않게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이렇게 국물과 머리까지 먹어야 진정한 새우 풀 코스를 먹었다고 할 수 있으니, 절대~ 잊으시면 안돼요!

원웅'S 먹Tip



재료 고유의 맛도 좋지만, 부재료를 곁들여 먹으면 주연 음식을 더욱 빛나게 하는 조합이 있다.  
 고소한 새우에 치즈를 덮어서 먹으면 고소함이 두 배!  
 새우에 질릴 때쯤 소세지와 함께 번갈아 꼬치에 꽂아 '소새소새'를 만들어 먹으면 별미가 된다!  
 이때부터 아무리 배불러도 2차전이 가능!



가을엔 역시 제철 새우요리가 최고예요!



저희 이만하면 SBI 먹방사 학위를 받아도 되겠죠? 깊어가는 가을 단풍보다 더 붉은 새우 먹방으로 원기 회복하고, 업무능력도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 비싼 새우를 이렇게 풍족하게 먹어본 적이 없는데, 새우를 배터지게 먹게 해준 SBI~ 사랑합니다! 새우보다더!



체험장소: 창우수산 활새우직판장 (강남구청역 3번 출구 앞)

새우를 직접 양식해 공수하기 때문에 항상 살아있는 싱싱한 새우가 수족관에 가득하다. 새우 소금구이를 먹고, 머리를 모아 두면 튀겨서 주는 '새우 머리 튀김'이 별미 중의 별미인 찐맛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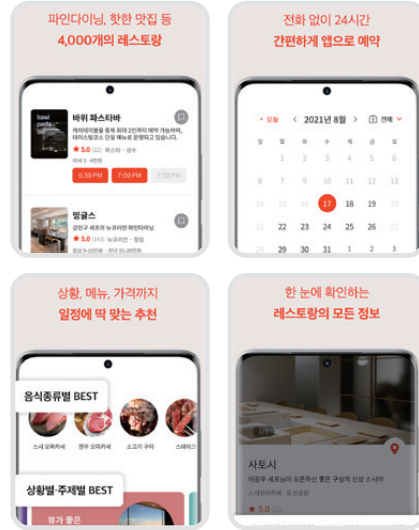
주요메뉴: 왕새우 소금구이, 왕새우회, 왕새우탕, 새우장, 새우튀김, 해물라면 등

# ‘맛.잘.알’로 거듭나기 위한 추천 어플리케이션

지난 여름은 참 뜨거웠습니다.  
비도 정말 많이 내렸죠.  
덥고 습한 여름 동안 잠시 잊고 살았던 미식 본능,  
내 안의 미식가를 200% 만족시키는 앱을 소개합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맛있으면 0 칼로리를 기억하며 여러분의 미식 생활에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인기 레스토랑 검색은 물론  
실시간 예약 서비스 제공  
**캐치 테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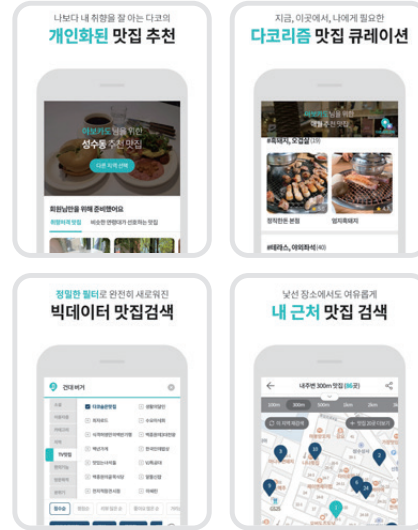
미식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건 아마 맛집을 고르는 과정일 겁니다. 가격대는 물론 음식 종류와 레스토랑의 위치, 분위기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죠. 캐치 테이블은 즐거운 미식 생활을 모토로 오마카세, 콜리지 프리, 뷔 맛집 등 조건에 맞춰 식당을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용어에 대한 정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가령 일본어 '말집다'에서 나온 '오마카세'는 스시 레스토랑에서 웨프가 상황에 맞게 제공하는 특선 요리를 뜻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급 코스 요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캐치 테이블의 경우 한우와 오마카세를 붙여 우마카세라고 표현하는 등 용어를 미리 알아 두면 편리합니다.



앱 다운로드



가성비는 물론 가성비까지!  
빅 데이터 기반의 맛집 검색 앱  
**다이닝 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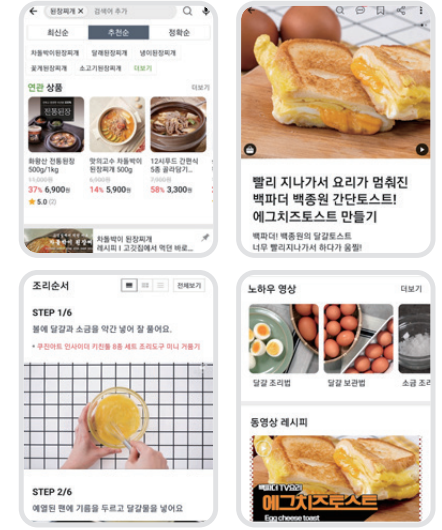
캐치 테이블이 미식을 키워드로 대체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레스토랑 정보를 제공했다면,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다이닝 코드가 합리적입니다. 일단 위치만 입력하면 다이닝 코드 알고리즘이 선정한 맛집을 한눈에 볼 수 있고, 평점이나 리뷰, 거리 등 조건에 맞춰 맛집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식당부터 건강식, 혼밥, 데이트, 술모임, 아이동반 등 필터 기능을 활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특히 생활의 달인, 수요미식회, 맛있는 녀석들 등 각종 프로그램에 소개된 TV맛집도 검색 가능합니다. 다이닝 코드에 맛집 후기 작성시 제공하는, 네이버 페이로 전환할 수 있는 300원 상당의 포인트 혜택도 잊지 마세요.



앱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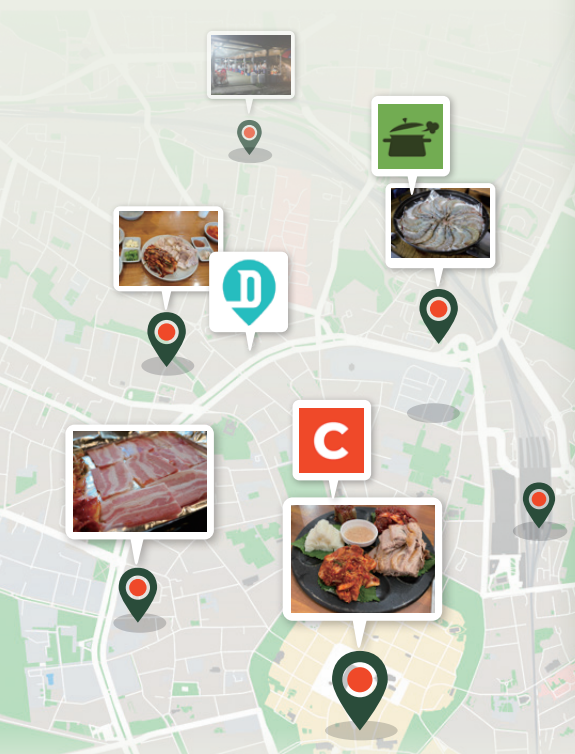
필요하다면 직접 요리를!  
무려 10만여개의 레시피를 제공하는  
**만개의 레시피**



맛집에서 요리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사실 직접 해 먹기는 요리만큼 가성비 좋은 방법도 없습니다. 요리하는 과정은 물론 번거롭습니다. 그러나 요리 과정을 통해 음식의 맛이 배가 되는 특이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레시피를 제공하는 앱은 다양하지만, 그중 하나만 꼽으려면 바로 만개의 레시피. 타이틀과 달리 무려 10만개의 레시피를 제공하고, 음식 종류별, 상황별, 재료별 등 다양한 레시피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싶은 재료를 입력해 거꾸로 음식 레시피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 레시피도 제공하고 있으니 요리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참조하세요.



앱 다운로드





하늘은 높고 맑은 살이 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하늘은 높푸르고 땅에는 곡식이 노랗게 익어가니 마음도 저절로 풍요로워집니다. 날씨는 화창하고 나들이하기도 좋고, 없던 입맛도 생기는 가을이 되면 맛집 탐험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뜻일까요? SBI의 소울 푸드와 맛집을 알려주세요.

**당신을 위한 소울 푸드**

소울 푸드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어떤 이들에게 소울 푸드는 입학식, 졸업식 같은 날마다 찾았던 짜장면일 수

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며 야식으로 즐기던 라면 한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퇴근 무렵,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닿는 치맥집은 언제나 환영이고, 엄마가 만들어준 평범한 집 밥을 그리워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음식 속에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여러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며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기도 하고, 이 같은 기억을 곱씹기 위해 다시 그 음식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인생 맛집이란 말도 나왔나 봅니다. SBI의 최고의 맛! 음식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미지출처: 다이닝코드, 네이버 플레이스



**가슴 설레게 한 새우의 추억**

**영종도 서해수산**

**이가일 준비감시팀**

**위치** : 인천 중구 영종순환로339번길 73  
**영업시간** : 매일 10:00 - 21:00  
**대표 메뉴** : 왕새우소금구이, 왕새우튀김, 간장왕새우장 등  
 항생제를 전혀 쓰지 않고 유익한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양식법 바이오플락 새우양식 기술을 도입해 항생제 걱정 없이 싱싱한 새우를 즐길 수 있다.

얼마 전 남자친구와 영종도로 데이트를 갔습니다. 처음엔 인천으로 향했다가 바다도 볼 겸 영종도까지 갔죠. 방문 당시에는 계절이 아니었지만 다가올 가을을 기념할겸 새우구이 맛집을 찾았습니다. 새우 맛은 물론 저를 위해 새우를 직접 까준 남자친구의 정성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맛있고 설레고 즐거운 추억 가득 만들고 왔습니다.



**나의 인생 돈가스**

**디금 카츠**

**오자영 대구지점**

**위치** :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25-111층 (반월당역 10번 출구)  
**영업시간** : 11:00 - 21:00 (15:00 - 16:00 브레이크 타임 / 매달 1, 3, 5번째 월요일 정기 휴무)  
**대표 메뉴** : 로스카츠, 히레카츠, 상로스카츠 등  
 옛이정 방식으로 숙성시킨 깨끗한 기름에 튀겨 고기의 부드러움과 육즙을 느낄 수 있다.

대구지점 근처에 가게가 오픈하자마자 호기심에 한번 들렀는데, 이날부터 이 가게는 저의 인생 돈가스 맛집이 되었습니다. 바삭한 튀김 옷과 육즙 가득한 선홍빛 고기, 곁들여 먹는 트러플 오일까지! 돼지고기 특성상 기름이 많지 않아 다소 딱딱할 수도 있지만, 이곳 돈가스는 한돈 돼지고기를 사용해 촉촉한 육즙을 머금고 있습니다. 입 안에서 살살 녹는 맛이 아주 일품이죠. 대구 지점장님께도 추천 드렸는데, 태어나서 먹어 본 돈가스 중 단연 최고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점장님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게에 방문해 사장님과 절친이 되었답니다.



**맛은 물론 비주얼도 최고인 오므라이스**

**엘지 다락**

김승지 기업금융3팀(A)

위치 : 서울 중구 수표로19길 19 4층  
(을지로3가역 9번 출구)

영업시간 : 월-토 11:00 - 21:30, 일 11:00 - 21:00  
(15:00 - 17:00 브레이크타임)

대표 메뉴 : 다락오므라이스, 다락-로제, 매콤 크림파스타 등  
아늑한 다락방 느낌의 공간에서 즐기는 파스타, 오므라이스,  
을지로 뿐만 아니라 신사, 강남, 여의도 등에도 지점이 있다.

최근 팀원 분들과 함께 엘지 다락이라는 양식집을 방문했습니다. 오므라이스와 찹스테이크, 매운 크림 파스타와 파인애플 에이드를 먹었는데 뭐 하나 빠지는 음식이 없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귀여운 파인애플 컵에 나오는 에이드를 먹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워낙 인기가 많아서 최근 강남과 여의도에 분점이 생겼다고 하는데, 엘지 다락 본점이 바로 회사 근처에 있으니 다른 직원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입덧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준 추어탕**

**시골집 추어탕**

한송이 광주지점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화산로 101  
영업시간 : 10:30 - 21:30,  
평일 15:30 - 17:00 브레이크타임

대표 메뉴 : 추어탕, 김치보쌈, 고막비빔밥 등  
미꾸라지를 골게 갈아서 추어탕을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먹을 수 있다. 비린맛도 없고 진하고 구수한 국물이 일품이다.



별써 5년이나 지난 일이긴 하지만, 당시 소중한 딸을 임신했던 저는 행복하면서도 힘든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입덧 때문이죠. 정말 지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임신 초기, 그날 따라 입덧이 심해서 퇴근길 버스에서 내린 뒤 구역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빈속으로 집에 갈 수가 없어 눈앞에 보이는 추어탕 집에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그 때 먹은 추어탕은 빈 속을 달래줬을 뿐만 아니라, 울렁이던 속도 잠잠하게 해주었습니다. 이후 입덧이 심할 때마다 추어탕을 찾게 되었고, 제 소울 푸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덧 다섯 살이 된 딸은 지금도 가끔 저와 손을 잡고 그 식당에 간답니다.



**입안 가득 고소함~ 45년 전통의 삼겹살**

**한도삼겹살**

김종영 전략기획팀

위치 : 서울 종로구 수표로18길 24 (종로3가역 15번 출구)  
영업시간 : 10:00 - 22:00, 매주 일요일 정기휴무

대표 메뉴 : 삼겹살, 차돌박이 등  
1974년부터 같은 자리에서 오랜 단골을 보유하고 있는 45년 전통의 삼겹살 전문점. 경기도 이천에서 가져온 생고기를 일정한 온도로 숙성시킨 후 얼려 낸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서울 종로 3가 인근 골목에는 아주 오래된 삼겹살 집이 있습니다. 간판은 35년 전통으로 되어 있으나 가게가 1974년에 오픈했으니 거의 50년 가까이 되었네요.

고소하게 익은 냉동 삼겹살 한 점에 매콤새콤한 파채, 여기에 마늘까지 함께 싸 먹으면 정말 별미입니다. 사장님이 직접 볶아주는 볶음밥은 1인분이지만 3인분 같은 양을 자랑합니다.

요즘 같이 선선한 가을 날, 노포 감성 물씬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냉동 삼겹살 어떤가요?



**어릴 적 추억이 살아 있는 맛, 곱창전골**

**곱들이와 낙순이**

윤호상 리테일심사팀

위치 : 부산 북구 효열로203번길 20 (금곡역 1번 출구)  
영업시간 : 10:30 - 22:00

대표 메뉴 : 낙지전골, 낙새전골, 낙곱전골, 소곱창전골 등  
곱창과 낙지, 새우가 다른곳보다 큰 덩어리가 들어가 있어서 탱글탱글하게 씹는 맛이 좋다. 전골냄비 한가득 푸짐하게 나와 양도 넉넉하다. 변화기에 위치하고 있지 않지만 아는 단골들이 많은 숨은 맛집이다.



곱창전골이 소울 푸드가 된 건, 14살 무렵 어머니를 따라 곱창전골 가게에 방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어머니가 전골 두 국자에 콩나물과 김가루, 밥을 비벼 주셨는데 그 맛이 진짜 환상! 곱창의 고소함에 콩나물의 아삭한 식감, 부드러운 고추장이 이불처럼 포근하게 입 안을 가득 채웠죠.

그 날 밥 두 공기를 후딱 해치웠습니다. 처음 먹어본 매생이전도도 있어서 허겁지겁 먹었더니 식당 아주머니께서 전을 서비스로 주셨죠.

지금은 서울에 있어 자주 가지 못하지만 부산에 갈 때마다 무조건 방문하는 곱창전골 집. 여전히 저를 반겨 주시는 가게 아주머니가 오래도록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BI 백일장  
런칭편 보러가기

SBI 포커스

<SBI이니셜> 두 번째 시리즈

# 배우 박성웅과 함께하는 SBI 백일장

“S.B.I로 만들 수 있는 당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난 9월 5일, 런칭과 동시에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SBI백일장>은 SBI저축은행의 새로운 기업 PR 캠페인이다. 연예계 대표 삼행시의 달인, 배우 박성웅이 TVCF 모델로 출연하였으며 광고 영상을 통해 S.B.I로 풀어나가는 일상 속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번 CF는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런칭 편 외에도, 근수저의 비밀 ‘헬스장편’, 세상에 뽐내보자 ‘스타일편’, 아내 몰래 산 ‘게임기편’ 총 4편으로 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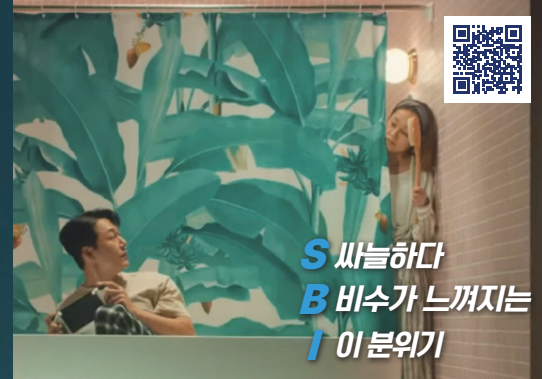
# 삼행시의 달인

S 사소한  
B 백일장  
I 이야기



S 상체했고  
B 복근했으니까  
I 이제 하체 해야지

근수저의 비밀을 담은, '헬스장편'



S 싸늘하다  
B 비수가 느껴지는  
I 이 분위기

아내 몰래 산, '게임기편'



S 세상에  
B 뽐내보자  
I 이런 스타일

세상에 뽐내보자, '스타일편'

## SBI만의 특별하고 새로운 기업PR 캠페인

### Special, Brilliant, Initial campaign Begins

대한민국 1등, SBI저축은행은 1등다운 국민적 인지도를 만들기 위해 일반적인 노출형 광고가 아닌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SBI를 기억하고 캠페인에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기업광고를 기획한 바 있습니다.

바로 2020년말에 시작한 [SBI가 SBI를 찾습니다] 캠페인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SBI 이니셜을 가진 이름들을 찾아 소개하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대를 이어가고 있는 <상범이네 도너스>, 배우의 꿈을 쫓는 청춘 <신별이>, 사랑스런 반려묘 <식빵이>, 방역맨 <소병일>, 민물새우 <새뱅이> 등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SBI들이 세상에 소개됐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중들에게 SBI를 기억하게 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광고제인 <Spikes Asia>에서 은상과 동상을 수상하며 크리에이티브의 우수성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효과와 크리에이티브의 탁월성을 인정받은 SBI 이니셜 캠페인, 2022년에는 더 많은 대중들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름하여 <SBI 백일장> 입니다.





**더 강해진 확장형 이니셜 캠페인, SBI 백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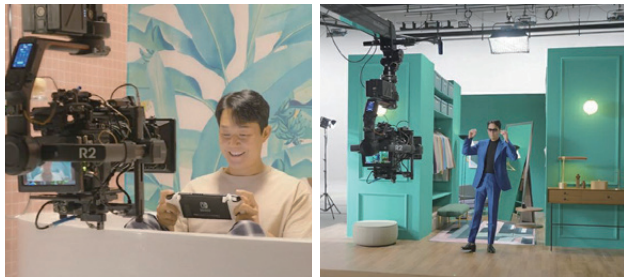
**Stronger, Borderless, Initial campaign Returns**

<SBI백일장> 캠페인은 전국민이 참여 가능한 캠페인으로, 초성 S.B.I로 만들 수 있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사이트를 통해 응모하면 됩니다. 참~ 쉽습니다. 또한 매주 응모작들 중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가장 재미있고 재치있게 삼행시를 작성한 참여자 세 명을 선정하여 각각 장원, 우수, 장려상의 원고료도 지급합니다. 기회가 많아서 또 좋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바밤바 삼행시를 통해 삼행시의 장인으로 불리우는 배우 박성웅이 TV 광고 모델로 활약했습니다. 배우 박성웅씨는 모델로서 완벽한 연기력으로 백일장 참여자들의 삼행시를 재미있고 실감나게 표현하며 광고의 몰입감 뿐만 아니라 웃음과 공감도 함께 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진행되는 백일장 심사위원 역할도 수행할 만큼 이번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함께 했습니다.

<SBI백일장> 캠페인은 런칭은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매 주마다 주옥 같은 삼행시들이 응모되는 등 5000 : 1 이 넘는 경쟁률로 우수작들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다양한 삼행시들이 모이다 보니 응모작들의 수준 또한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글 : HS Ad 신병재 팀장



**# 인생의 계절**

**S** 시린 겨울을 견뎌내면  
**B** 벗꽃 휘날리는 봄이 찾아온다  
**I** 인생도 그러하다



**# 맛의 비결**

**S** 손맛 좋은 시어머니♥  
**B** 비결은 다사다였다..  
**I** 이럴수가!!!



**# 8살 예쁜딸**

**S** 소곤소곤  
**B** 비밀이야  
**I** 이거 얼마만 먹어



**SBI** 저축은행  
**SBI 백일장, 소중히 빛나는 일상을 저축합니다**

**# 가발**

**S** 속절없이 흘러버린 세월에  
**B** 비어버린 빈자리  
**I** 이제라도 채워볼까



**# 코로나시대의 연애**

**S** 서로의 하관을 처음봤다  
**B** 반했다고 생각했는데..  
**I** 이걸 아니잖아??



**# 사랑하는 딸에게**

**S** 쉬어가고 괜찮아  
**B**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으니  
**I** 이 경험도 나중에는 추억이 되기를



<SBI 백일장> 수상작 중

바야흐로 웃음과 눈물과 감동이 어우러진 큰 축제로 발전 중인데요. 특히 손편지로 백일장에 참여한 응모자도 있었는데, 응모자는 수감생활 중에 TV를 통해서 SBI백일장을 접하게 됐고 온라인 접속이 불가능한 환경이다 보니 꼭꼭 눌러쓴 편지를 통해 응모를 하게 된 것입니다. SBI저축은행은 캠페인에 정성으로 함께한 이 특별한 응모자에게 소정의 보답을 하며 훈훈한 이야기를 완성했습니다.

<SBI백일장> 캠페인은 입소문을 타고 지금도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바이럴되며 대중적인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우리 일상 속의 이야기, <SBI백일장>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SBI 백일장**

- 참여 방법 : 캠페인 사이트(www.iamsbi.co.kr)에서 응모 가능
- 참여 기간 : 22.09.05(월) ~ 22.10.16(일)
- 매주 장원작, 우수작, 장려작 선정 / 참여자 전원에게 편의점 상품권 제공 (주차별 중복 응모 가능)



**SBI 백일장**  
캠페인 사이트

# SBI의 새얼굴을 소개합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 SBI에도 새 얼굴들이 넉쿨째 찾아왔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38명의 신입사원과 자신만만 8명의 경력사원을 함께 소개합니다.



## 환영합니다. 31기 신입사원 여러분!

2022년 8월 10일 사령장 수여식을 끝으로, 2개월 간의 대졸 신입사원 채용 및 교육 일정이 막을 내렸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38명의 신입사원들은 합격의 기쁨도 잠시, 7월 18일부터 8월 9일까지 총 3번의 연수 및 교육 과정을 거치며 바쁜 시간을 보냈다.

사령장 수여와 동시에, 이제는 썬 SBI인으로 거듭난 31기 신입사원들. 사회인이 되었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낯선 환경에 조금 두렵기도 하지만 '새로운 출발'이기에 설렘이 더 앞선다. 소속 팀이 생기고 담당 업무를 배정받으며 직장인이 되었다는 게 실감이 되는 순간이다. 즐거웠던 31기 동기들과의 추억을 잠시 뒤로 하고 이들은 이제 금융인으로서 사회에 첫 발을 딛고 더욱 더 성장해나갈 것이다.



**조승연**  
IB1팀(B) / 31기 기수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신입사원 공채 31기의 기수장을 맡게된 조승연 사원입니다. SBI저축은행은 늘 제가 들어오고 싶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SBI의 일원으로서 함께하게 되어 굉장히 기쁘고 설렘니다! 저와 함께 들어오신 31번 동기분들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의 열정을 잊지 않고,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저희 31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1. 긍정왕 ESFJ
- 2. <자부심>, 꿈꾸던 회사에서 일을 하니 자부심이 쑥쑥!
- 3. PT, 취업 준비하는 동안 살이 많이 찌어오.

## 2022년 31기 신입사원

- Q1. 당신의 MBTI와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 Q2. SBI저축은행은 나에게 < >다. 이유는?
- Q3. 취업 준비 끝!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김상호**  
리테일영업2팀

- 1. 어디든 잘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ESTJ
- 2. <선물>, 멋진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기 때문
- 3. 해외 여행



**고재덕**  
기업금융1팀(B)

- 1. ENTP, 열정적인 오지라퍼
- 2. <새로움>,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서
- 3. 나만의 취미 찾기.

- 1. 등글등글한 성격의 ISFP
- 2. <설렘>, 첫 사회생활이라 설렘니다.
- 3. 취준 기간 꼭 한 번 해보고 싶었던 캠핑



**권수연**  
부동산금융1팀(A)

- 1. 내향인 중에서는 가장 외향적이고, 외향인 중에서는 가장 내향적인 ISFJ
- 2. <새로운 시작>,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 3. 지인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싶어요.



**권우정**  
클렉선기획팀

- 1. ENFJ, 낯을 가리는 편이지만 금세 친해집니다.
- 2. 함께 나아가고 힘이 되어 주는 <동반자>
- 3. 영국 여행



**김기영**  
전주지점

2022년 31기  
신입사원



김예린  
영업서비스팀

- 1. 낮가림 많고 조용한 ISFJ
- 2. 때려야 뭉수 없는 존재 <스티커>
- 3. 가족여행



김승재  
일산지점

- 1. 재치만점 ENFP
- 2. <희망>, 내 삶에 긍정적 변화를 주어서
- 3. 한강 라이딩 하면서 시원한 공기 마시기.

2022년 31기  
신입사원



박동은  
수원지점

- 1. 책임감 강한 ISTJ
- 2. <기회>, 이 기회를 잡아 성장하겠습니다.
- 3. 재테크



민홍기  
소호영업2팀

- 1. 겉으로 무뎠는데 보이지만 사람을 좋아하는 ENFJ
- 2. 자기 계발을 하도록 만드는 <새로운 자극점>
- 3. 가족 여행



김성태  
기업금융1팀(A)

- 1.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걸 좋아하는 ENTJ
- 2. <무기>, 이젠 집에서 눈치 안 봐도 되니까.
- 3. 그동안 못 다녔던 여행



김윤혁  
대구지점

- 1. 도전적이고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ESTP
- 2. 첫발을 딛게 해준 <출발선>
- 3. 경치 좋은 곳에서 캠핑



박희준  
IB3팀(A)

- 1. 냉철하고 현실적인 ESTJ
- 2. <사랑>, SBI저축은행 사랑합니다~
- 3. 제주도 여행



박상혁  
인천지점

- 1. 조용한듯 보이지만 활발한 ESTJ
- 2. <달리기>, 처음엔 어렵지만 나중엔 뿌듯함을 느끼니까.
- 3. 클라이밍



김승지  
기업금융3팀(A)

- 1. ISFP, 집순이지만 막상 나가면 누구보다 신나는 사람
- 2. 새로운 꿈을 갖게 해준 <시작점>
- 3. 가족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박수정  
리테일영업3팀

- 1.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ENTP
- 2. <행복>, 항상 행복한 일만 생기길~
- 3. 테니스 도전!



연성희  
인프라서비스팀

- 1. 웃음이 많은 ISTJ
- 2. <시작>, 언제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임하겠습니다.
- 3. 믿고 응원해 준 지인 분들께 식사 대접



김주호  
이수지점

- 1. 낮을 가리지않 친해질수록 활발한 ESFJ
- 2. <학교>, 배울 수 있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서
- 3. 부모님께 선물 사 드리기.



김예지  
부동산금융1팀(B)

- 1. 사교적인 외교관 ESFJ
- 2. <쏟지 않은 택배박스>, 매일 두근거리어서
- 3. 나에게 수고했던 말과 함께 백화점에서 플렉스



안다영  
리스크관리팀

- 1. 수줍음이 많지만 친해지면 말 많은 INFJ
- 2.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한 <새로운 시작>
- 3. 여행



김지현  
영업서비스팀



서진원  
경영관리팀

- 1. 추진력 강한 ESTP
- 2. <학교>, 성장하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 3. 업무에 빨리 적응해서 도움이 되는 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2022년 31기  
신입사원



**이경현**  
포항지점

- 1. 자유로운 영혼 ESFP
- 2. <멘토>, 배울 점이 많아서
- 3. 부모님에게 선물 드리기.

- 1. INTJ, 별종인듯 별종 아닌 별종 같은 나?
- 2. 싫없이 함께 전진할 수 있는 <자전거>
- 3. 직장인다운 방 꾸미기.



**이호형**  
부동산금융2팀(A)

이호형 부동산금융2팀(A)



**정재욱**  
영업서비스팀

- 1. INFJ, 쑥스러움 많은 청년입니다.
- 2. <선물>,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3. 영끌 투자

2022년 31기  
신입사원



**조원웅**  
강남지점

- 1. ENFJ, 바른 언어를 쓰는 무해한 사람
- 2. 기다림이 설레는 <번호표>
- 3. 요리 학원에서 음식 배우기.



**이제원**  
리테일마케팅팀

- 1.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ENTP
- 2. 돌아서면 생각나는 <미결 사건>
- 3. 해외여행



**이은성**  
기업금융지원팀

- 1.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는 ENTP
- 2. 인고의 시간을 지나 찾아온 <봄바람>
- 3.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천동훈**  
기업여신심사팀

- 1. INFP, 솔직하고 공감을 잘합니다.
- 2. <씨앗>, 성공의 씨앗을 뿌리고 싶습니다.
- 3. 유럽 여행



**최혜현**  
코어뱅크개발팀

- 1. 걸바속속 INTP
- 2. 나에게 없으면 안 되는 <아이스아메리카노>
- 3. 그냥 폭 자고 싶어요!



**윤현진**  
재무경영팀

- 1. 웃음이 많은 ENFJ
- 2. <새로운 시작>, 내 삶에 변화를 주어서
- 3. 자주 못 봤던 친구들 만나기.




**윤호상**  
리테일심사팀

- 1. 속이 따뜻한 ISTJ
- 2.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맛있어지는 <와인>
- 3. 플레이스테이션 구입, 현재 구매 완료!



**홍재웅**  
잠실지점

- 1. 분위기 메이커 ESFJ
- 2. <짝사랑>, 짝사랑을 이룬 것 같은 기분입니다.
- 3. 영어 회화 스테디



**최지훈**  
준법감리팀

- 1. 둥글둥글한 공 같은 ISFJ
- 2. 성공적인 회사생활을 그릴 수 있는 <흰 종이>
- 3. 그동안 미뤘었던 취미생활



**이동인**  
사이다뱅크팀

- 1. ESFJ, 둥글둥글하고 모난데 없는 동네 형
- 2. <자부심>, 나에게 큰 자부심을 주니까.
- 3. 제주도 여행



**이동현**  
채권관리팀

- 1. 활발하면서도 동시에 조용한 ENFP
- 2. 내게 던져진 소중한 <선물>
- 3. 응원해주신 부모님과 여행



**현정인**  
IB2팀(A)

- 1. 궁금한 것이 많은 ENTP
- 2. <선물>, 원하던 직무도 말고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서.
- 3. 시드머니로 부자되기.



**최지은**  
지점관리팀

- 1. 긍정적인 성격의 ENFP
- 2. <외국어>, 열심히 배우고 싶어서
- 3. 오랜 기간 가지 못했던 여행

## 2022년 3분기 경력사원

- Q1. 이를 삼행시로 당신을 소개해주세요.  
Q2. 2022년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Q3. 팀원들에게 하고 싶은 한 마디!  
Q4. 근무지 근처, 최고라고 생각하는 맛집은?  
Q5. 입사 이후,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는?

### 김민호 금융소비자보호팀

1. 김: 김민호입니다.  
민: 민중에는 1987년생이지만  
호: 호랑이띠입니다.
2. 골격근량 40kg! 헬스 3대 운동 400 달성!
3. 팀의 중간에서 원팀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명동함흥냉면본점
5. 사원증을 패용하고 가는데, 먼저 인사를 건네 주신 사우분들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 김석환 영업서비스팀

1. 김: 김석환이라고합니다. 혹시  
석: 석(씩) 맘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환: 환영해주세요~
2. 한달에 한 권씩 책 읽기
3.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4. 아직 잘 몰라서... 추천 부탁드립니다~
5. 얼마 전 회식했습니다. 너무 뜻깊은? 자리였는지 다음날 숙취가 기억 나네요.



### 이상채 시스템운영팀

1. 아: 이상채는  
상: 상상 이상으로  
채: 채(최)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팀에 잘 적응하고 이상채 주니어를 갖는 게 꿈입니다.
3. 잘 챙겨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4. 수정식당의 제육볶음
5. 회사의 전산장비들을 책임지는 IDC(데이터센터)가 굉장히 잘 정비되어  
있어 인상적이었습니다.



### 목은균 시스템운영팀

1. 목: 목탁!  
은: 은은하게 탕탕탕!  
균: 균일하게 탕탕탕!
2. 자전거로 국토종주 완주
3. 앞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4. 고향식당의 오징어볶음과 제육볶음
5. 퇴근 후 동료들과 함께 했던 스크린골프전, 한일전 방블게 하는 승부였습니다.



### 최규환 영업서비스팀

1. 최: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SBI저축은행에  
규: 규환 주임이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환: 환영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시스템 운영 업무를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 싶습니다.
3.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육개장에 곱창이 들어간 종로육개장
5. 입사 첫날 비가 내려 옷이 축축해졌지만, 기본만큼은 신났던 일



### 백지선 CSS팀

1. 백: 백지선입니다  
지: 지금은 부족하지만  
선: 선배님들께 열심히 배워하겠습니다.
2. 건강 증진!
3.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CSS팀 팀장님, 팀원들 감사합니다.
4. 신동궁빠짐
5. 처음 맛본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 2호선



### 탁지민 여신감리팀

1. 탁: 탁 트인 마음과  
지: 지혜로운 생각을 가진  
민: 민초처럼 상쾌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2. 득근! 근육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3. 언제나 즐거운 우리 팀, 적응 잘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기소야의 돈가스나 나베
5. 점심 시간 제 메뉴가 가장 나중에 나와 팀원분들이 모두 기다렸던 슬픈 기억이...



### 전호빈 포항지점

1. 전: 전 직원 분들! 늘 행복하세요.  
호: 호도 많이 하시고  
빈: 빈(빳)나는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2. 가족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3. 제 주위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길!
4. 두루치기가 맛있는 원장왕자와 김치공주
5. 한남노 태풍으로 지점 전력이 차단되는 일이 있었지만, 직원분들 덕분에  
빠르게 복구할 수 있었어요. 도움을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 자연이 전하는 귀한 선물, 제철음식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자연은 각 계절마다 곡물, 과일, 채소, 생선 등 인간을 위한 다양한 식재료를 선사합니다. 이런 식재료를 만든 게 바로 제철 음식, 여러분은 제철 음식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 자연의 정기를 담다

약 182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브 '입 짹은 햇님'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제철 음식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밝혔습니다. "우리 삶이 제철 음식을 언제까지 허락할지 모른다." 유머가 섞인 발언이긴 하지만, 이 말은 사계절을 겪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 돌아보게 합니다.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철마다 다른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봄에는 봄내음이 가득한 미나리와 곤드레, 겨울 바다를 이겨낸 햇미역과 산란기를

앞두고 알이 꽉 찬 주꾸미를 즐기고, 여름에는 입안에 넣으면 툭 터지는 자두와 부드럽고 찰진 옥수수, 시원한 수박을 먹으며 더위를 이겨냅니다.

가을은 여러 농작물을 수확하는 풍요로운 시기, 쌀을 시작으로 사과, 배, 포도, 감, 무화과 같은 과일과 대추, 밤, 잣, 은행 등의 열매를 먹습니다. 가을 전어와 대하도 정말 유명하죠. 겨울에는 산란기를 맞은 대구가 가장 담백하고, 늦겨울 대게는 살이 가득 올라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다시 봄으로 이어지는 사계절은 우리에게 축복과 같은 제철 음식을 만끽하게 합니다.

제철 음식은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하는 역할도 합니다. 햇나물로 만든 봄철 음식은 겨울 동안 부족했던 비타민을 채우고, 여름철 전복은 더위에 지친 체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가을에 수확하는 다양한 견과류는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죠.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기름이 한창 오른 삼치는 지방이 풍부해 추위를 이기는 데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제철 음식을 먹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 사과와 대추, 가을의 달콤함에 빠지다

바야흐로 가을, 사과는 계절과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과일이지만 제철은 단연코 가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 유통되는 사과 품종의 70%가량은 일본에서 개발된 후지 계열 즉 부사입니다. 부사는 생산량도 많고 저장도도 높아 연중 공급됩니다. 10월 하순에 수확한 부사를 저온창고에 보관할 경우 이듬해 6,7월까지 버틴다고 하는데, 오래 보관한 과일은 당연히 맛이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부사는 퍽퍽하고 텁텁하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죠.

그러나 가을 무렵 수확한 부사는 전혀 다른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사과는 일교차가 심할수록 당도가 높고 단단한데 한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맞고 새벽녘에 찬 서리를 맞은 사과는 진한 단맛을 자랑합니다. 꿀사과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사과는 아니지만 사과와 비슷한 맛을 내는 가을 과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대추. 대추가 과일이라고 하면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추도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입니다. 쉽게 무르고 상해 생으로 먹기보다는 건대추로 즐기다 보니 과일이라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대추는 9월 말에 익기 시작해 10월이면 절정에 이르고, 잘 익은 생대추는 놀랄 만큼 단맛을 냅니다. 생대추를 즐기기 위해서는 여러 수고를 거쳐야 합니다. 건대추의 경우 나무 아래에 멍석을 깔아 장대로 털어내면 되지만 생대추는 껍질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나씩 일일이 수확해야 합니다. 정성스레 수확하는 복숭아나 포도와 비슷한 대접을 받으니 대추도 가을 과일이 확실합니다.



대표적인 가을 제철 음식들



**배추와 무** 가을 무는 날것으로 먹어도 높은 당도를 자랑하고 가을 배추는 수분 함량이 뛰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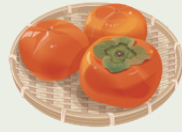
**무화과** 꽃이 없는 과일이라는 뜻의 무화과는 약재로 쓰일 만큼 효능이 많다. 생으로 먹어도 건조하거나 잼으로 만들어 먹는다.



**배** 기관지 질환에 특효인 배는 루테올린이란 성분이 들어 있어 기침이나 감기에 효과적이다.



**송이버섯** 쫄깃한 식감과 신선한 향이 일품인 송이버섯은 가을 한철 즐길 수 있는 귀한 재료다.



**감** 가을에 수확한 감은 건조 정도에 따라 감말랭이, 반건시, 꽃감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호두, 잣, 밤, 은행** 대표적인 건강 간식 견과류는 모두 가을이 제철이다.



**높은 호박** 11월 잘 익은 높은 호박은 부드러운 단맛으로 스프와 죽으로 요리하기 편하다.



**고구마** 가을 농작물 중 달콤한 맛을 자랑하는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 좋다.



**꽂치와 고등어** 가을철 꽂치와 고등어는 겨울을 앞두고 지방 함량이 높아 맛이 좋다.



**송곳게** 게는 암꽃게와 송곳게의 제철이 다르며 암꽃게는 봄, 송곳게는 가을이 제철이다.



**낙지** 9월에서 11월까지 낙지는 꽃낙지라고 부를 정도로 맛이 절정이다.



**해삼** 해삼은 가을부터 맛이 좋아지며, 눌렀을 때 단단한 느낌이 들어야 좋다.



전어와 대하, 가을의 전설이 되다

속담에도 등장하는 전어와 대하도 가을의 주인공입니다. 가을이 되면 왠지 꼭 먹어야 할 것 같은 음식이죠. 수산물의 경우 대체적으로 산란기가 가장 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어는 그 반대입니다.

전어는 청어과의 난류성 물고기로 겨울에 남쪽 바다로 내려갔다가 4월 즈음 연안으로 이동해 7월에 알을 낳습니다. 이때 전어는 살이 푸석하고 비린내도 심합니다. 8월 이후 전어는 겨울 준비를 하면서 살이 오르고 지방도 풍부해지기 시작하는데, 전어가 바다로 나가기 직전인 9월과 10월이 최강의 고소함을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반면 가을 대하는 산란기인 9월에서 11월까지가 가장 맛있습니다. 4월과 5월, 알에서 갓 대하는 연안에서 왕성히 먹이 활동을 하며 10월에 수컷은 12-13cm, 암컷은 16-18cm까지 자랍니다. 대하는 알을 품기 위해 난소를 발달시키는 암컷보다는 수컷이 맛이 좋으며 10월 말이 되면 대하의 몸집이 최대로 커집니다. 대하가 가장 살이 오른 시기, 가을 대하는 쫄깃한 식감에 달고 감칠맛이 납니다.



리틀 포레스트, 음식으로 삶을 위로하다

모든 식재료가 나고 자라는 곳은 바로 흙과 숲, 강과 바다입니다. 또한 계절도 영향을 미칩니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는 계절에 따른 식재료를 음식으로 만드는 과정을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주인공은 고향 마을로 내려가 자신이 직접 수확한 채소나 산에서 채집한 산나물과 열매를 손질해 음식을 만들죠. 음식 안에는 흙과 바람과 햇빛과 물, 자연이 키워낸 소중한 결실이 숨어 있습니다.

'리틀 포레스트'는 이가라시 다이스케가 쓴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일본 영화가 먼저 개봉하고 이후 한국 버전으로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디테일한 분위기는 조

금 다르지만 두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자연의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보는 것 만으로도 힐링이 된다는 것. 클릭 하나면 온갖 식재료가 집 앞으로 배달되고, 밖에 나가면 여러 종류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세상은 빠르고 편리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연 그 대로의 것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어." 영화 속 이 대사는 요리하는 데 드는 시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자연에서 나고 자란 수많은 날들,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지나야 비로소 맛볼 수 있는 제철 음식에 대한 작은 헌사입니다.

영화 [리틀포레스트] 중에서



## SBI저축은행, 금융소비자연맹 선정 ‘좋은 저축은행’ 3년 연속 1위



SBI저축은행이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선정한 ‘좋은 저축은행’에 3년 연속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금소연은 매년 금감원 공시자료, 각 사의 경영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안정성(50%), 건전성(30%), 수익성(20%) 3개부문 8개 항목별로 저축은행을 평가해 ‘좋은 저축은행’을 선정한다.

이번 평가에서 SBI저축은행은 고정이하여신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자본총계 등 건전성 부문 등에서 1위를 기록하며, 종합순위 1위에 선정됐다.

이로써 2020년, 2021년에 이어 3년 연속 ‘좋은 저축은행’ 1위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SBI저축은행은 소비자 중심 경영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쌓고, 만족과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국내 1위 저축은행으로서 저축은행 업계 발전을 선도하고,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

## SBI저축은행, NICE기업신용평가 A등급 획득 9월 정기평가에서도 A등급 유지



SBI저축은행이 NICE기업신용평가에서 지난 5월에 이어 9월에도 안정적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기업신용등급 ‘A’ 획득을 통해 SBI저축은행은 업계 1위 저축은행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NICE신용평가는 중금리대출 확장을 통한 저축은행 업계 최상위 시장지위를 확보, 타 저축은행 대비 고도화된 신용평가시스템 보유, 대손충당금 적립수준과 공고한 이익창출력을 바탕으로 한 양호한 손실완충능력, 자본적정성 개선 등을 이유로 A의 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SBI저축은행은 2021년 12월말 기준 자기자본 1.5조원, BIS자본비율 14.7%, 총자산 13.2조원, 고정이하여신비율 2.7%로 자산건전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저축은행 업계 독보적인 1위 업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앞으로도 포용적, 사회적 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업계의 모범을 보일 예정이다.



## SBI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권도 업계 1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업계 최고  
(22년 상반기)



SBI저축은행이 79개 저축은행 중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의 이자 감면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의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시,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난 8월,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요구 신청 건수는 38,568건이고, 그 중 13,410건이 수용되었으며 총 31억7천만원의 이자가 감면되었다.

SBI저축은행은 12,216건의 신청 중 7,364건을 수용했고, 총 19억1천7백만원의 이자를 감면했다. 이는 저축은행 업계에서 가장 많으며 시중은행들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SBI저축은행은 앞으로도 서민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 <2022 아시아투데이 금융대상> 저축은행부문 서민금융·디지털금융 최우수상 수상

SBI저축은행이 아시아투데이가 주최한 <2022 아시아투데이 금융대상>에서 저축은행부문 서민금융·디지털금융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시상식은 올 한해 동안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낸 금융사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SBI저축은행은 사이다뱅크로 모바일 플랫폼 시장을 선도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금융협회 및 학계, 금융업계와 금융소비자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와 금융분야 교수진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SBI저축은행, 폭우 피해 수재민 지원 위한 성금 전달 피해 복구 및 수재민 지원에 사용 예정

SBI저축은행이 최근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과 수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5천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성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되어, 피해를 입은 지역 복구와 수재민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SBI저축은행 정진문 대표이사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지역 주민들이 하루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SBI저축은행은 산불,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빠른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전달,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펼쳐 왔다.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SBI저축은행 매거진 [희망저축]은 임직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두 귀를 쫓긋 세웁니다.  
홍보팀 김윤희(unicandoit@sbisb.co.kr)에게 의견을 보내주세요.

### [SBI 체험현장] 참가 신청

가족, 동료, 연인, 친구, 고객 등과 함께 참여하는 체험에 도전해 보세요.  
체험현장을 담은 사진과 영상으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드립니다.

### [SBI Answer] 설문 참여

매호 키워드를 하나 선정하여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희망저축 설문] 이벤트 참여

웹진(http://sbiwebzine.co.kr)에 접속하여 '설문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의견으로 더욱 알찬 희망저축을 만들겠습니다.

### 편집후기

#### “웃으며 안녕, 가을”

김윤희 | 홍보팀

저는 말이 아닌데 왜 살이 찰까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은 하늘이 높고 풍요롭기 때문에 말 조차도 살이 찌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 이유에서 일까요? 사계절 중 가을은 유독 맛있는 제철 음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여름철 무더위로 잠시 잊었던 입맛이 되살아나는 시기도 바로 가을입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철 음식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니다. 맛의 상향 평준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대한민국에서는 제철 음식 외에도 맛있는 음식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철 음식은 단순히 '맛' 보다는 그 안에 지닌 '낭만'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1년이 지났음을 알게 되는 자연의 알람 같아요.

이러한 서사를 이해하게 되면서 제철 음식은 꾸준히 챙겨먹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가을에는 전어와 대하, 그리고 꽃게까지 아무지게도 먹었네요. 역시 미식의 계절답게 가을에는 먹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번 가을호 사보를 편집하면서 알게 된 영종도 대하 맛집은 올 가을이 가기 전, 꼭 가보고자 해요.

출근을 하려 집 밖에 나서는데, 오늘따라 더 쌀쌀하고 코끝이 찡한 게 금방 겨울이 올 것만 같더군요. 미식의 계절, 가을이 금방 떠나는 건 아쉽지만 겨울에는 방어가 있기에 저는 웃으며 가을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조만간 친한 직장 동료들을 모아 노랑진으로 대방어 상상을 떠나려 합니다. 혹시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주저 말고 내선번호 74012로 연락주세요.

새파란 가을 하늘을 보고 있자니 가을의 풍요로움만큼 저를 포함한 모든 분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늦가을 보내세요! 방어의 알람 시계가 벌써부터 울리는 듯 한데, 이제 곧 진짜 겨울인가 봅니다. 그럼 저는 방어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To be continue 방어편!



### 독자 Quiz

[희망저축]을 읽고 퀴즈의 정답을 맞춰보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Q1. SBI사이 최고의 '가을의 맛'으로 꼽은 음식은 굽은 허리도 펴게 한다고 하는 가을  입니다.

Q2. 가을은 주변에 풍성한 제철 음식들이 많이 보이는 계절입니다. 다음 중 가을을 대표하는 제철 음식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 ① 배추와 무    ② 딸기    ③ 전어    ④ 사과

Q3. <SBI이니셜> 두 번째 시리즈 'SBI 백일장' 캠페인의 TVCF에 출연한 배우   은 탄탄한 연기력과 특유의 코믹한 매력에 어우러져 대중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 MZ 용어 Quiz

문제 SBN은 무엇의 줄임말 일까요?

- ① 선배님(SunBaeNim)
- ② 세븐틴/방탄소년단/엔시티
- ③ 소소하게/방에서/넷플릭스보기
- ④ 사고 보니 내 거(2세대 새로운 소비 패턴)



### 지난 호 독자 Quiz 정답

Q1. 5 1 3 1 /

Q2. © 스페인 / Q3. I B S

### MZ 용어 Quiz 정답

문제: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재능을 가진 사람.

정답: © 웃수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경제적으로 좋은 환경을 누리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금수저'를 응용한 신조어.

• 독자 Quiz와 MZ 용어 Quiz 정답을 12월 23일(금)까지 홍보팀 김윤희(unicandoit@sbisb.co.kr)에게 보내 주세요.  
• 정답을 보내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